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55)(4/21/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6 장 사람들의 판단은 헛됨, 3 절

마 10:28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시 146:1-5 -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 5:7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갈 6:2 -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왜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살아 있다가도,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행으로 네게 무슨 해를 입힐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해를 입는 것은 네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시비조의 말로 다투지 말라. 당장은 네가 지는 것 같고, 부당한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해하지 말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의 면류관을 손상시키지 말라. 도리어, 너는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온갖 수모와 해악으로부터 건져 줄 수 있고, 각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것인지 주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과 함께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1)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한다. **마 10:28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벌도 받을 이유가 없는 무죄한 분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사형 언도를 하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 중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다.

솔로몬은 노년에 수많은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못 이겨 우상숭배를 함으로 타락함으로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솔로몬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곧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2)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있고, 사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 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시 146:1-5 -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호흡에 의지하며 때가 되면 사라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의지해야 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3)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아니지만 미움과 다툼과 증오의 대상도 아니다. 주의 백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관계로 만들수 있어야 한다. 롬 12:18-19 -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마 5:7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엡 4:1-3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롬 12:13 -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 13:16 -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갈 6:2 -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람을 향한 바른 마음 가짐과 자세로 영적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바른 마음 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영성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남아공화국 김영무, 탄자니아 박재덕, 에티오피아 박종국, 이기형, 가나 양광균, 케냐 최인호)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질병과 전쟁으로 생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 질서, 평화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